

창 16:1-11 인간이 쓴 역사 책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이기고 살아남은 강한 자가 기록하니, 의당 살아남은 강한 자 입장에서 씁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행해 저지른 탄압과 폭력까지 정당화 하기 쉽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읽는 인간은, 다른 인간을 무례하고 야만적으로 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가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다'는 동물 세계의 야만성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드러내, 결국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무례하고 야만적인 짓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성은 성경조차 이기고 살아남은 강자 편에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늘 약한 자 편에 서 계십니다. 인간의 정의는 자기가 선 자리,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아닙니다. 약자에게도 정의로운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국이 세계 열강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새 낀 것처럼, 이스라엘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란 거대 문명 새 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창세기가 기록됩니다. 전쟁 위협, 억압과 종속 사이에 낀 약자의 고민이 담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도 강자 아브람과 사래 입장에서만 읽지 마시고, 약자 계집종 하갈 편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철없는 하갈이 주제넘는 짓을 했지만, 모두 사래때문입니다. 사래는 강자의 이기심과, 사려깊지 못한 폭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져다 준 걸 취하고 일이 꼬이자 아브람은 발을 빼고, 꼬인 걸 풀어 수습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우물가에서 약한 여인 하갈을 만난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 16:1-11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기도)

사래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건 당시 풍습입니다. 임신 못 하는 걸 수치로 알고 염치있는 아내라면, 대 안 끓기게 계집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야 했던 게, 당시 문화적 압력입니다. 그렇게 계집종이 낳은 애는, 여주인 애로 여겼습니다. 아브람은 당시 풍습을 따라, 아내 사래의 정중한 제안을 받아 들입니다. 1-6 절까지 첫 장면에서는 사래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사래가 주연이고, 여주인 손에 이끌린 하갈과 아내 말을 따른 아브람은 조연입니다.

그래서 창 3:6 선악과 사건과 동일하게 16:3 도, 아내가 ‘가져’서 남편에게 ‘주었다’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가정의 위계 질서가 뒤바뀐 겁니다. 둘 다 결과는 재앙입니다. 아내 말 듣는 게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창 21:12 도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아내 말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이 될 사람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유혹이 오더라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간관계일지라도, 가장 우선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더구나 사래를 통해 들어온 유혹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명분도 충분하고요. 육체적 정욕에 이끌려 젊은 여인을 아브람이 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뤄지는 걸 보고 싶은 갈망에, 하갈을 품은 겁니다. 사실 아브람을 통해 후손이 번창할 것이란 약속은 있었지만, 사래 경우는 맥락적이지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첩 들이는 게 당시 관습이고, 아브람이 그러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 모든게 논리적이고 명분도 이치도 그럴듯 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그런 것처럼.

사단의 제안은 모든 게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단의 책략에 굴복하면, 아브람처럼 지름길인줄 알고 가다 큰 낭패를 봅니다. 그 지름길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단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십년전 겨울, 비행기로 비상식량을 산에 뿌린 캘리포니아의 한인이 있습니다. 아들 가족 차량이 산에서 실종되자, 아버지가 뿌린 겁니다. 명절에 다른 도시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아들 가족이, 지름길로 온다고 산길을 탔다 조난당한 겁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구했지만, 구조 요청하러 차를 떠난 아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사단이 제안하는 지름길이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람이 약속받은 지, 벌써 십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두른다고 보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조금하게 믿지 못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일이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데 쉽게 지칩니다. 장애물이 보이면 바로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려는 사람, 아이 갖기를 바라는 사람, 논문 쓰는 사람, 직장 구하는 사람, 그리고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꿈과 소망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약속이 이뤄질 가망성이 전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먼저 자기 동기가 옳았나. 순종하고 있나, 또 숨긴 죄악은 없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선하고 타당하다 여겨지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을 때는 어쩍니까? 답은 '계속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둔한 분이 아닙니다, 동시에

서두르는 분도 아닙니다. 교회창립 기념일마다 케익 자르는데, 어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들 중에는 일년 내내 생일 기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오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묻습니다. “내 생일 아직 아냐?” 그날이 되면 엄마가 먼저, 눈뜨는 아이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생일 케익 자르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면 아이는 생일상 차려질 때까지 오해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금 당장 달라고, 때를 쓰고 물건을 집어던질 때가 있습니다. 생일상 차리려면 미리 떡도 세인트루이스에다 주문할 수가 있고, 친구들도 초대해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한다는 걸 헤아릴 줄 아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침을성 있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고 모든 게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걸 주십니다.

사단의 지름길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전보다 훨씬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죄가 피난처로 보이지만, 여우굴 빠져나와 호랑이굴 들어가는 꼴입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아브람, 사래, 하갈? 누구나 입장이 있으니 간단치 않지만, 셋 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아브람은 가장으로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지만 시험이 사래로부터 옵니다. 사래도 아이만 낳으면 되니까, 계집종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갈도 의당 여주인에게 공손해야는데, 임신한 걸 알고는 사래를 멸시합니다. 사래가 아브람을 추궁하자, 사래편을 들고, 사래가 학대하자 하갈은 도망칩니다. 이렇게 셋 다 잘못하고, 동시에 셋 다 피해자가 됩니다. 인간관계 모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렇듯, 셋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하갈은 여주인에게서 달아남으로, 문제로부터 달아납니다. 여호와와 천사가 충고합니다. ‘문제의 원인으로 돌아가 사래를 마주 대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어떤 변명을 해도, 하갈은 사래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문제로부터 달아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로 돌아가 문제와 직면할 필요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로 바꾸는 게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어쨌든 셋 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사래는 계집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합니다. 아브람은 사래 계획을 따르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해결 대신 회피합니다. 하갈은 문제로부터 달아납니다. 이런 엉크러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사래와 아브람은 그렇게 바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아브람이 중재를 거부한 하갈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푸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꺼이 우리 문제를 내어 드린다면, 어떤 문제도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갈은 친절 애굽을 행해 도망쳤는데,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브람을 버린 건, 그에게 임한 축복을 버린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갈을 도망치게 만든 건, 아브람과 사래의 행동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도록 이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분께 온 사람도 달아나게 만들지는 않나? 복음에 이르게 하는 doormat 인가 아님, 철조망 두른 울타리인가? 종종 교회 안에는 철조망 두른 울타리처럼, 자기도 안 들어가고 온 사람도 달아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자 하갈은 하나님 은혜를 입습니다. 여호와와 천사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하갈에게 접근합니다. 몇 마디로 하갈의 죄를 깨닫고 하고, 아브람을 떠난 절망적 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가, 장래에 받을 축복을 확인시킵니다. 그 만남이 우물가에서 있었는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갈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는 지속적인 골치꺼리입니다. 16:12 “대항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까이’란 뜻도 될 수 있고, ‘적대적’이란 뜻도 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그의 형제들 가까이 있으면서 대항할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종종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아브람과 사래의 죄를 간단히 말끔히 씻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랬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죄는 파묻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속량해야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헤메는 우리를 우물가로 찾아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 죄를 조용히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나치면, 축복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아브람은 실패자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신실치 못할 때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의 의는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의 믿음을 붙들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계획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깰 때 받게 될 저주는 당신이 떠말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아브람처럼 우리 실패를 그분 앞에 내려 놓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실패자 아브람과 방랑자 하갈을 위한 복음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한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는 곳, 약속이 이뤄지는 곳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뤄지기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